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자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2021. 05. 30. (나해) 제2270호

대구주보



산격성당에서 -
2020
2021-
Bernard

산격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신명 4,32-34,39-4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2독서** 로마 8,14-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단골집



교구 청년청소년국 국장 | 문창규 베드로 신부

누구나 자기만의 단골집이 있습니다. 서비스와 분위기가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등등 단골집이 된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의 청소년기 때의 단골집은 학교 앞 분식집도 있지만, 최고의 단골집은 성당이었습니다. 그 시절 성당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당에 가면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교리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행복한 체험들이 성당을 단골집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회는 왜 청소년들의 단골집이 되기가 힘들까요? 여러 청소년사목 자료들을 보다가 마음을 사로잡은 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보스코 성인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들이 어른들에게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 역시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구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는 교회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해 6개의 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광역시와 협력해 운영하는 ‘꿈&꿈’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 청소년들의 수기 모음집에서 볼 수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향한 꾸밈없는 사랑의 표현과 소중한 ‘꿈’ 이야기는 서툰고 단순하지만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청소년들은 압니다. 누가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누가 정말 자기를 내어줄 사랑을 갖고 있는지, 누가 자기의 영혼을 일깨워 줄 존재인지 말입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행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와 실천으로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단골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궤뎡**

아브라함 II (창세 11,27-25,11)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과 정점의 순간은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셨던 아기 예수님처럼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일이나(창세 12,10-20; 마태 2,13-15), 사흘날에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듯이 사흘 길을 걸어가 희생 제사를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히 '부활'했던 일이 그렇습니다(창세 22,1-19; 사도 10,40).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신 하느님의 구원 약속은(창세 12,3)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지요(갈라 3,14).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갈라 3,7,29)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엔 우리처럼 기쁨과 절망, 믿음과 불신 사이를 부단히 오가던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느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섰으면서도(창세 12,1-9),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그네살이하다 위기를 겪고(12,10-16), 아들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미루시는 하느님께 불평하거나(15,2-3) ‘대리모’를 통해 인간적인 방편을 찾기도 하고(16,1-6), 하느님의 약속을 부부 모두가 웃어넘기기도 했지요(17,17; 18,12-14). 그러나 아브라함은 칠혹같이 답답한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믿었기에, 그분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15,6). 또 온갖 위기 때마다 늘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그를 변함없이 지키셨지요(12,17-19; 15,4-21; 17,1-27; 18,10-14). ‘명백한 증거가 있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에게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는 진리가 그렇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22,1-19). 자식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족을 벗겨 살과 내장을 살라 바치라는(레위 1,5-9) 그 지독한 명을 말이지요.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했던 그의 말은,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비롯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라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며 인간의 한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희생만 요구하는 잔인한 분이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우리 곁에서 인내하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느님을 우리가 어찌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 “벗”(이사 41,8)이라 부르셨던 아브라함이 겪은 수십 년의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삶에 나의 오늘을 비추어봅니다. 믿음과 실천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하느님의 벗”이 되어, 충만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일상을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궤산**

보물 중의 보물

홍해본당 | 장윤경 스텔라



“스텔라씨! 가장 아끼는 보물 1호가 뭐예요?”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성경대학 4년 개근상으로 받은 성경과 말씀을 적은 수첩, 그리고 목주예요.” 그러자 다시 “성경읽기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2010년 즈음에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는 말씀이 당시 너무 와닿았고, 2016년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 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3-14)라는 말씀에 펄펄 울어 버렸습니다. 그 감동에 힘입어 성경암송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대학 야간반에 등록해 성경을 읽으면서 차 안이며 거실, 부엌에 맘에 닿는 말씀들을 써붙였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힘이 솟는 것을 느꼈고 직접 실천하면서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이 좋지 않을 땐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에페 5,22)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졌고,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집회 3,14)는 말씀은 부모님께 효행을 다하도록 하는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히브 13,2)라는 말씀에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 택배기사님, 마트 종업원, 전기공, 폐지 줍는 할머니까지 모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료

와 함께 “주님 축복 가득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건네면 모두들 밝게 웃으셨고 저 역시도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세례와 견진까지 받게 한 동료의 친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을 방문하여 대세를 드렸습니다. 막 일어서려는데 옆에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자매님,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냉담한지 오래돼서 ... 저는 파킨슨 환자입니다.”라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순간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이 떠올라 “할머니 제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고 자녀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은커녕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할머니의 봉성체를 돕고 기도드리면서 자녀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2019년, 할머니의 자녀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께 잘 해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할머니께 해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을 뿐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 후 자녀분들은 조금씩 변화되었고 이 가족들이 하느님과 화해할 때까지의 시간은 5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이사 41,10) 저는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비롭게도 제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

‘치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종교(金宗敎) 프란치스코는 1754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의원이 되었다. 그는 가난한데다가 호감이 가지 않는 외양을 하고는 있었지만, 학문에 대한 취미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 주역인 이벽 요한은 이러한 그를 매우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놀라운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다.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김범우 토마스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한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드러나게 교회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1791년의 신해박해 때는 박해자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김종교는 다음해 초 최 인길 마티아의 집으로 가서 주 신부를 만난 뒤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해 여름에 일어난 을묘박해로 체포된 후에는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즉시 신앙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 동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리를 공부하는 한편,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프란치스코는 절친한 최필공 토마스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일시 경기도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정약용 요한의 문초 과정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이 나오면서 체포되었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김종교 프란치스코는 엄한 문초와 형벌에 다시 마음이 약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형조로 이송된 후에는 갖가지 혹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굳건하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김종교 프란치스코
(1754 ~ 1801년)

“저는 예전에 배교하고 석방된 후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을 찾아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앙이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형벌과 문초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이러한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이를 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형조에서는 마침내 프란치스코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1801년 10월 4일(음력 8월 27일) 홍필주 필립보와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위험이 증대되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유와 쾌락에 사로잡힌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가 야기하는 긴장은 가정 안에 편협함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독창성을 내세워 개성을 키우는 이러한 자유에 송고한 목적이 결여되고 개인적 수양이 부족하다면, 이 자유는 우리가 자신을 기꺼이 내어 줄 수 없게 합니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혼인하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혼자 살거나 또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동거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잘못 이해하면, 오로지 대접받는 데에만 관심 있는 고객으로 시민들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타성과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특징으로 하는 혼인의 이상이 결국 개인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 33, 34항 참조)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5일(토) 10:00 월성성당	-	-
-----------------	---------------------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6.6(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6.12~13 / 7.17~18
3박 4일: 6.4~7 / 7.8~11
8박 9일: 6.25~7.3 / 8.6~14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피정_하느님의 작품인 나를 찾아

일시: 6.20(일) 13:30~17:3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 분원
(삼덕성당 옆) / 회비: 5천원
대상: 청년남녀 누구나
문의: (010)5139-1984



가톨릭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엄마생각 하늘생각 도예성물 展

일시: 5.29(토) ~ 6.25(금) 4주간

장소: 갤러리 1981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1층)

작가: 김종숙 요안나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하반기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와 같은 기존 신앙 체험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분량 준수)

기간 및 방법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장약술(요셉) 신부
1937년 5월 31일
- 김계룡(베드로) 신부
1947년 6월 2일

교육 | 모집

가정특강 온라인 강의 배부

배부일: 6.2(수) 10:00

주제: 슬기로운 코로나 버티기

시청방법: 카카오톡 채널 검색

천주교대구대교구가정복음화국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ME주말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대구ME 채신 주말: 7.3(토)~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ME주말을 체험하신 모든 부부

첫 주말의 감동을 배우자와 함께하는

힐링여행 / 문의: 983-0521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취득반 모집

일시: 9.3(금)~12.5(일)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미술심리상담사,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칼럼바, 문인화,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오카리나,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수지엔니어그램 모집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6.12(토) 10:00~17:00

문의: 남대영기념관, (010)8682-4237

바오로딸 6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6.19(토) 15:00

주제: 구약성경 새로 읽기

강사: 강수원 신부

성체조배: 6.1 매주 화

문의: (010)6681-5185 사전예약 무료

한국평협 어머니학교 줌 온라인 강의 실시

일시: 6.18~7.9 매주 금 19:30~21:00

강사: 조재연(비오) 신부(햇살사목센터)

대상: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접수: 햇살사목센터 / 마감: 6.11(금)

문의: 햇살사목센터, (02)744-084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채용 | 안내

청년청소년국 직원 채용

업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우대: 컴퓨터활용능력 및 포토샵 능숙자

마감: 6.7(월) / 접수: 방문 또는 우편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50-3069

http://www.jesusclub.or.kr/dcyf

용평마을 양로원 종사자 채용

대상: 생활지도원, 조리원

마감: 6.15(화)

주소: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재락(마태오), 김경희(플로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가톨릭피부과의원 진료 안내

58년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진료분야: 습진, 무좀,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알러지, 레이저 시술 등

문의: 320-2000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바른 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자 10대이상 원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아견양급

대구광역시 동구 칠성동 289-5 (010)85-0505 (영수영)
대표장장 이세원(투가) 053-571-0075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군(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곽재혁신경과
BYE-WAN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막병원 4층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정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마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혜택

▶ 1인 1구와 이상 가능, 1구확대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 구 정 신 병 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대표전화|| 1688-7667